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송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3년 7월 제280호 http://cnmhs.net

주식회사 대미농수산
대표 정 관 성 (17회)
010-5401-5090
대전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47 (용전동)
Tel (042) 638-4988 Fax 638-4983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정관성 편집인 : 임동현 인쇄인 : 민운기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매력 있는 충남기계공고 만들겠다" 약속 지켜

동문 최초로 부임 이종업 교장, 모교 크게 발전시키고 정년 맞아

동문출신 최초로 2021년 3월 모교 교장에 취임한 이종업 동문(기계과 14회)이 모교를 상전벽해(桑田碧海 : 뽕나무 밭이 변하여 큰 바다를 이룸)로 발전시키는 큰 공로를 세우고 다음달 8월 31일 정년한다. 이 교장은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모교의 눈부신 변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모교의 건물은 리모델링과 신축을 통해 일신하였고 각종 첨단 시설을 구비하여 모교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련 기사 2,3면>

이종업 교장이 모교 뒤편 3개 동을 허물고 2024년 10월까지 신축건물을 짓는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업(李鍾業) 교장은 1960년 3월 대전 중구 중촌동에서 출생하여 대전 목동초, 대전동산중을 거쳐 충남기계공업고 기계과(14회)를 졸업하고 충남대 공업교육대 기계교육공학과에 진학하여 특성화고교 교사로 교육일선에 투신했다. 이후 투철한 교육관으로 충남대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품과 실력을 갖춘 교사로 거듭나려고 노력했다.

교직 경력은 단양공고에 처음 부임한 후 학산중, 청산고, 청주공고, 충남기계공업고를 거쳐 대전지족고, 대전관저중에서 교사를 지낸 후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장학관(중등교육과장), 대전시교육청 장학사(장학, 인사), 장학관(직업교육)의 현장 행정 실무를 쌓은 후 대전공고 교장에 부임했다. 대전공고 부임 후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2019년도에 대전공고를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우수학교로 선정시키는 등의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뤄 학부모와 학교 주변 주민의 칭송을 받아 이임하면서 동네주민들의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이종업 교장은 동문들의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 교직생활의 대미를 모교에서 보내게 됐다. 그 결과 모교에 부임 후 대대적인 시설 개선과 함께 학생들의 인성과 진로에 힘을 기울여 큰 성과를 나타냈다.

이종업 교장은 취임 당시 전국적인 공업계열 특성화고 학생 기피 현상으로 큰 위기인 현상에서 직업계고가 국가의 기반이 되는 산업인력 배출이라는 고유의 역할을 저버리고 취업이 불분명한 취미와 흥미 위주의 가사계열(네일아트, 바리스타, 제과제빵, 조리, 반려동물 등)로 변해가는 현실에서 국가적으로도 충남기계공업고의 변화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장은 "이 같은 위기를 학생을 위하고 교직원들을 도와 극복해 나가겠다"며 충기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했다. 무엇보다 그 주축에 3만7천 동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장은 "우리 후배들을 4차 산업시대의 핵심역량과 인성을 갖춘 기술인재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산업체, 모교 동문이 똘똘 뭉쳐 충남기계공고를 매력 있는 학교로 변화시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동현 편집위원장이 이종업 교장에게 감사의 뜻으로 꽃바구니를 전달하고 있다.

이 교장의 노력으로 이제 충남기계공고는 최첨단 시설과 실력 양성으로 매력 있는 학교로 변하고 있다. 이종업 교장의 각고의 노력은 충남기계공고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특성화고교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가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고 솔개처럼 쇄신하여 중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은 학교로 우뚝 서게 되어 자랑스럽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제32회 총동문체육대회 올10월에 개최합니다

코로나로 3년째 중단되었던 총동문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3년 10월 21일(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 모교 대운동장

◈연락처 : 총동문체육대회 추진위원장 23회 최병무(010-6430-6165)
총동문회 사무총장 민운기(010-8255-0084) 총동문회 사무국장 임정호(010-4411-5218)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총동문회장 정 관 성

“학생이 행복한 학교로 만들어 미래의 인재를 키웁니다”

〈이종업 교장 모교 돌며 설명〉 전국에서 견학 오는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

이종업 모교 교장이 7월 24일 오후 동문회보 설송소식과 인터뷰를 마친 후 모교를 돌며 학교 시설 전반에 걸쳐 설명했다. 모교 시설을 사진으로 담아보았다. - 편집자 주 -

집무 중인 이종업 교장

모교 운동장을 바라보며

말끔히 단장된 모교는 견학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기술인은 조국근대화의 기수탑 앞에서

피아노와 음향시설 갖춘 휴게실

전국 최고시설의 펜싱 훈련장

최신식 헬스장에서 체력 단련

제22대 집행부 모임 갖고 당면과제 논의

22대 집행부는 7월 14일 유성에서 모임을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 했다.

총동문회 22대 집행부는 7월 14일(금) 오후 6시 30분 유성전주복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정관성 회장을 비롯하여 민운기 사무총장, 임정호 사무국장, 한병수 복지국장,이용주 조직국장. 권오진 사업국장, 오규성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2대 집행부의 운영방향과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각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관성 회장은 “22대 집행부의 당면 과제로 자동납부 인원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각 국장들이 기수 모임, 산하단체 모임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장들은 “동문회가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송예경 총동문회 총무 –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각 회수나 단체동문회 소식과 개인동정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총동문회편집실 ☎(042)252-5656

“위기의 물살 급해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

〈모교 교장을 마치며〉 동문들께 감사

며칠 전 종합감사(최근 3년치 감사)에서 담당자가 ‘충남기계공업고는 많은 예산과 많은 사업과 수없이 많은 실습실 이전을 해내면서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잘 정비되어 있고, 운영이 잘 되어, 감사 지적사항이 이례적으로 적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학교의 변화에 함께 해준 우리직원들에게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직업교육이 격동하는 시기에 모교에 부임하여 위기로부터 모교를 구해내고자 하는 일념으로 잠을 못 이룬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면서 학교가 나로 인해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 속에 머물러 있기는 위기의 물살이 너무 급해 이를 극복하고자 이것저것 많은 일 들을 해왔습니다. 학교에 걸려 있는 모든 부정적인 글과 그림을 제거하고, 모든 실습장을 유리로 개방하여 수업이 투명해지고, 구석구석 공간이 아름다워지고, 학생이 태도가 변하고, 좋은 신입생이 들어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교가 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어 후임 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여 4년 이상 근무 할 책임교장을 공모로 모셔오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모교가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일을 말없이 해내준 우리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모교의 은사이자 우리의 영웅입니다. 직원들이 고맙고 존경스럽습니다.

동문 선후배님!

우리 동문의 모교사랑은 갈등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 같았습니다. 위기와 갈등을 동문애와 우정으로 극복하며 다시 동문 선후배의 정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교 같은 직업계고가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여생이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며 행복한 동문회를 만들어 갑시다. 저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023년 7월

이 종 업 올림

“과거 틀에 갇히지말고 과감하게 미래에 도전하라”

〈이종업 교장 대담〉 전국 최고의 직업학교로 성장하길 바래

동문으로 모교 교장에 처음 부임한 이종업 교장은 임기 동안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정년퇴임을 맞게 됐다. 모교 교장실에서 임동현 편집위원장은 준비해 간 화분과 책 한권을 선물한 후 화기애애한 가운데 대담을 진행했다. <편집자 주>

- 교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모교를 졸업하고 충남대 공업교육대학에 진학하는 계기가 되어 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 다시 한 번 생이 주어진다면 교사를 선택하실 건가요? 이유는?

“(아무 망설임도 없이) 선택하겠다.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모교에 부임하신 이후 기적 같은 일들을 이뤄 내셨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요?

“첫째로 학교 공간혁신을 한일이 돋보였다. 학교의 모든 공간을 아름답게 가공하여 학생과 교사에게 돌려줌으로써 학교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고스란히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었다. 둘째로 학과 개편이다. 미래 사회의 경쟁력 있는 학과로 개편(6개 학과 개편)하였다. 학생중심 다양한 진로프로그램 운영하는 출구전략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에 선도하였다. 설송반(공기업, 공무원, 대기업반), 군기술부사관반, 독일취업반, 대학진학(조기취업계약학과), 중소기업 맞춤형반, 운동부 등이다. 셋째로 청렴하게 일 처리하기 위해 일체의 물품 구매, 업체 선택을 담당자의 소신에 맡겼다.”

- 모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학생을 믿고, 학교 경영을 하며 학생들이 변화로 호응해 오는 것을 보고 기뻤다.”

- 충남기계공고 역사상 학교를 빛낸 가장 훌륭한 교장선생님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텐데, 모교가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은?

“공립학교의 변화는 그 결과가 미래에만 나타나게 하지 말고, 그때 그때 혜택이 되어 당사자(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나타나야만 성공의 확률이 높다. 변화를 위해 현재 구성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은 실패로 몰고 가는 것이다.”

- 학교를 변화시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학교 변화를 두려워하는 교직원의 설득과 변화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컸고, 동문회의 갈등에 의한 학교 운영에 차질이 가지 않을까 우려도 했지만, 우리 동문은 갈등 속에서도 학과개편, 환경변화에 함께하고, 동문 청탁이 극히 없었던 위대한 동문이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중부권 최대의 아름다운 학교(학생이 오고 싶은 학교, 교직원이 근무하고 싶은 학교),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학교(미래 대비 학과가 많고,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함), 훌륭한 동문이 많은 학교(학생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선배가 많음)입니다.”

- 모교 후배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칭찬은?

“학생들이 착합니다.(학교폭력이 거의 없음), 인사도 잘하고, 순응적인 학생이 많습니다.

- 교장 선생님 인성을 아이들이 배우며 자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 때만해도 비빔밥,디딤돌 등 서클이 수십 개가 있다고 학생부장선생님이 호통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웃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줍어하지 말고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이 자신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교장실에서 이종업 교장과 허심탄회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다.

- 교장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입니다. 소통과 공감이 아닐까요”

- 앞으로 학교가 이루어야 하는 목표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고 싶은 학교, 졸업 후 가장 좋은 진로를 찾아가는 학교,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 전국 최고의 직업학교로 거듭 성장하는 것입니다.”

- 올해 가장 기뻤던 일은?

“새로 개편한 학과에 많은 신입생이 모여 학교의 경쟁력이 높아졌을 때입니다.”

- 교직에 근무하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인지?

“모교에 부임하여 모교의 변화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일이다.”

- 가장 슬펐던 일은?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길을 택하여 갈 때, 교사로서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감은 정말 상실감이 크다. 학교가 모든 것을 책임 져 줄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 가정,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학생들 지도에 나서야 한다. 학생이 곧 미래고 우리 인류의 생존이 아니던가?”

- 학생들에게 추천하고픈 책이나 영화가 있다면?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김태형 저, 갈매나무 출판)라는 책을 권한다. 인간관계에서 진짜 자존감을 찾는 게 중요하다.”

- 교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택하였을까요?

“환경과 자연을 아름답게 꾸미는 직업인 건축사를 했을 것이다.”

- 퇴직 후 하고 싶은 일은?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간접적 지원(충남대 사범대 전임교수 예정)을 할 예정이다. 내가 받은 것을 사회에 되돌려 주는 것,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아내가 좋아하는 일), 친구와 자연과 벗하며 그 동안 못했던 나를 찾는 것을 해보고 싶다.

- 바라는 학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소통, 공감,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학생이 행복하고, 교직원이 행복하고, 지역사회가 행복한 학교가 되는 것이다. 학교의 경쟁력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과거의 틀에 갇히지 말고 자신을 믿고 과감히 미래에 도전하라.”

– 임동현 편집위원장 –

경기도 여주 · 이천 · 광주 동문회 발족 안내

자랑스러운 여주, 이천, 광주지역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동문들의 모임 소식을 접하면서 부러웠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풍요롭고 살기에 좋은 경기도 여주, 이천, 광주에서 정겨운 동문님들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올해 9월 안에 동문회를 발족시키고자 합니다.

※ 연락처 = 추진위원장 이상필(16회) 010-5448-2935. 경기도 이천 안흥동 거주

“그 아버지에 그 아들, 변호사 2대째 탄생 영예”

백홍기 동문(16회) 아들 백준현군도 변호사 시험 합격

모교 동문 중에 자랑스러운 법조인이 두 분이 계시다. 법무사 등 법률관련 전문 직업인까지 합치면 부지기수겠지만 사법 고시를 패스한 동문에 국한하기로 한다. 한영식 동문(12회)과 백홍기 동문(16회)은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고, 현재 모두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늘은 본인에 이어서 아들까지 변호사가 된, 아니 어쩌면 본인의 아버지까지 삼대가 법조인 가족인 백홍기(16회) 동문을 만나 보았다.

백홍기 동문과 아들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담법률사무소 간판

올해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백홍기 동문의 장남 백준현군은 말 그대로 ’청출어람’이었다.

백홍기 동문은 충남 강경출신으로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지금의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나오신 아버님이 일찍이 돌아가신 뒤 순대국 장사로 5남1녀를 기르시는 어머님을 보며 기술을 배워 취직하여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충남기계공고에 진학하였으나, 못다 한 아버님의 법조인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큰 울림을 받고 충남대학교 법학과로 진학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해 그 꿈을 이루었다. 이후로 25년 간의 왕성한 변론활동으로 명성을 쌓았다.

대전 충청권을 대표하는 법률사무소 ‘로펌 보담’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무죄변론 전문변호사로 정평이 났다.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백준현 또한 아버지 뜻을 이어 받아 정의를 구현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백홍기 동문의 시종일관 온화한 목소리와 인자한 모습을 보면서 백선배님의 변호를 받는 분은 유무죄를 떠나 남은 생애는 평화를 찾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홍기 동문은 힘주어 말씀하신다. “변호사는 의사와 같습니다. 혼자서 병을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별의별 분쟁이 많은 요즘 세상입니다. 변호사를 찾아 법률적인 해법을 구하세요” 백 동문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모교 동문회가 화합하며 잘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앞으로 동문회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 정찬희 편집위원 –

“모두가 힘을 합해 300회 이상 발행하도록 힘써 달라”

〈임용호 선배 위로방문〉 초창기 동문회보 월간 발행 사재 털어

우리 동문회의 자랑인 동문회보 설송소식을 발행하는데 1등 공신을 가린다면 단연 임용호 동문(8대, 9대, 10대 총동문회장 등 3번에 걸쳐 6년간 재임)을 들 수 있다.

사비를 들여 총동문회보를 월간으로 전환하여 2만5천부를 발행하면서, 총동문회 사무실도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전기 회사 내로 옮기고 많은 사비를 들여 동문회보를 발행했다. 동문 선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임용호 선배가 올해 봄 충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 걱정이 컸다.

수술 후 병원으로 통원치료하며 견뎌내고 있는 임용호 선배를 위로하기 위해 대전 동구 가오동 대전전기회사 사무실로 서경원 전 총동문회장과 신도성 전 편집위원장, 임동현 편집위원장이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용호 선배(4회)는 동문회보를 월간으로 발행 할 당시 “예산이 없다고 일부 동문들이 반대했지만, 뚝심 있게 추진했다”며 “동문회보야말로 지금의 충기동문회 존재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선배는 “또한 최근까지도 일부 동문들이 정간이나 폐간을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 며 “모두가 힘을 합해 300회 이상 계속 발행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준비해 간 꽃바구니와 위로금을 전달하고 손을 잡아 드리며 사진을 찍고 나오는데 가슴이 울컥했다. 20년전 뵈었던 선배님의 모습은 없고 작고 주름진 손을 보니 짠하다. 새로운 용기가 생겼다. “더 알차게 더 정직하게 동문회보는 영원할 것이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임용호 선배가 동문회보 월간 발행을 설명하고 있다.

쾌유를 기원하는 꽃바구니와 위로금을 전달했다.

선후배가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다.

대전전기 사무실 앞에서 손을 잡고 건강회복을 기원했다.

“동문의 아픔 같이 나누자” 정성 담은 위로금 모아 전달

경기북부동문회 7월 정기모임 이경국 동문 쾌유 기원

경기북부동문회는 7월 13일(목) 오후 6시 30분 파주 운정에서 모임을 갖고 몸에 좋은 보양 음식으로 지친 몸을 달래주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경국(15회) 동문의 병원 치료가 길어진다는 소식에 동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였다. 일주일간 위문성금을 모으기로 하고 강문식(28회) 재무총무가 밴드에 공지하자마자 이틀만에 160만원이 모금되었다. 최종적으로 210만원의 성금이 답지하여 7월 22일 최기춘(15회 수석부회장) 동문이 병원을 찾아 쾌유를 바라는 우리 동문님들의 마음을 전하고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위로금 모금에 동참한 동문은 송영호(3회), 김민철(14회), 임동현(21회), 김용진(11회), 박덕신(23회), 강문식(28회), 임채호(20회), 최용선(15회), 김태경(22회), 최성구(12회), 김현수(11회), 김승환(14회), 현정배(17회), 김성수(8회), 최중호(24회), 김경수(19회), 최기춘(15회), 강진영(15회), 이동희(12회), 유재환(11회), 한흥석(17회) 등이다.

여러 모임 중에 유난히 충기공 동문들에게 더 애정이 가는 것은 다 같이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부지런히 잘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인간 심리학적으로도 어린 시절 동고동락을 같이 하며 고생고생한 사람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한다. 좋았던 일보다는 슬펐던 일이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안타까워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서로서로 보듬고 사랑해 줘도 부족한 시간들이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여름철 보양음식을 먹으며 동문들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고 있다.

총동문회에 발전기금 120만원 전달

17회 우정골프모임 창립 부여 백제CC에서

17회 우정골프모임이 부여에서 창립하여 라운딩을 가졌다.

17회 우정골프모임이 7월 21일 부여 백제CC에서 첫 발대식을 가지고 동기들과의 우정을 더 한층 돈독히 하였다.

수도권에서 4명이 참석하여 총 12명이 세 팀으로 나누어 라운딩을 마치고 유성 황산옥에서 뒷풀이 및 향후 운영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이날 최고성적은 김용택 동문(동영이엔지 대표)이 78타로 우승했다.

박동일 회장이 총동문회발전기금을 전달했다.

17회 우정골프모임은 회장으로 박동일(웹뉴스 대표, 전 YTN 기자), 사무국장에 백준현(전 서부농협지점장) 수석부회장에 오명진(의성산업 대표) 친구가 선임되었다.

정관성 총동문회장과 민운기 사무총장이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발대식에 대한 축하와 총동문회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17회 골프모임 회원 명의의 총동문회에 대한 발전기금 120만원을 전달 받았으며, 정관성 총동문회장의 개인적인 금일봉 전달식이 있었다.

– 민운기 총동문회 사무총장 –

“한시도 충남기계공고를 잊은 적 없다”

서울동문회 7월 모임, 한훈동 1회선배 동참

서울동문회가 산뜻한 유니폼을 입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서울동문회 7월 정기모임이 7월 15일 송추계곡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3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였다. 멀리 대전에서 아침 일찍 출발, 정관성 총동문회 회장과 민운기 사무총장, 권오진 사업국장이 참석하여 환영을 받았다.

무엇보다 이날 제1회 한훈동 대선배님이 몸소 찾아주셨다. 모든 동문들은 일어나서 우뢰와 같은 박수로 환영했다. 절대 동안의 모습에 다들 놀라워했다.

눈동자는 초롱초롱한 별이 빛나고 있었고 오늘따라 고딩시절로 돌아가 눈가가 촉촉해진다.

한시도 충남기계공고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하신다. 늘 지켜보며 동문회의 안정과 번영을 소원했으며 1963년 200명 입학해서 150여명 남짓 졸업하고 이제 많이 떠났고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동기들하고 모임도 한다고 하셨다.

오늘 부로 서울동문회는 제1회 선배님을 모심으로써 구심점을 찾고 뿌리 깊은 나무로 우뚝 성장해 갈 것이다.

유재환(11회, 경기동북부 전 회장, 서울동문회 추진위원) 회장이 성금 50만원 기탁하였고, 서울동문회에서 50만원 합 100만원을 총동문회에 후원성금으로 전달하였다. 19회 골프모임(총무 노기종)에서도 20만원을 후원했다.

검정색 단체복은 이천구(13회 전 경찰총경) 동문이 후원하였다. 정관성 총동문회장은 서울동문회에 금일봉을 전했으며 “안정적인 동문회 운영을 위해서 월1만원 캠페인을 강조”하였고 서울 동문들은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 임동현 편집위원장 –

2024년 신입생 모집, 동문과 가족 적극 홍보 기대

중학생 300여 명 체험행사 드론, 마이링 만들기, 스털링엔진 체험 등

모교에서 2024년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중학생 체험행사가 진행되었다. 중학교 진로교사들이 모교를 방문하였고 중학생 300여 명이 본교를 다녀갔다.

모교 교사들과 드론만들기, 마이링 만들기, 스털링엔진 체험하기 등 여러 프로그램을 즐겁게 체험한 아이들은 꼭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모교의 이종업 교장과 교직원이 우수 학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동문회 차원에서도 모교의 홍보활동에 힘을 보태 수많은 동문들이 함께 뛰어주길 바란다.

– 모교 기사 제공 –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정원(주간, 남)

구분 \ 학과	스마트 융합기계과	철도 차량과	디지털 설비과	기계 설계과	스마트 시티과	전기과	스마트 팩토리과	합계
학급수	2	2	2	2	2	2	2	14
전체모집정원	36	36	36	36	36	36	36	252
특별전형	32	32	32	32	32	33	33	226
일반전형	4	4	4	4	4	3	3	26

※ 특별전형에서 미충원인원은 일반전형 모집정원에 추가하여 선발함.
※ 모집정원의 경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입학상담

- 전 화 : 042-580-2200~2201
- 홈페이지 :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 접속 또는 오른쪽의 입학상담 QR코드 스캔

모교 신산업실습실 구축비 사용 국고 40억 원 확보

모교는 신산업실습실 구축비에 사용할 국고 40억 원을 확보하였다. 신산업실습실은 철도차량분야, 스마트시티분야, 진로체험센타에 집중 투자되어 인공지능, 코딩 등 디지털 장비를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꾸며지는 최첨단 실습실로 꾸며진다. 신산업실습실은 대전시 직업계고 학생들과 충기 학생들의 실습실로 사용될 예정이고 중학교 학생들의 모교 홍보에도 사용되어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충남기계공업고의 환경이 전국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설송반 출신 후배들 졸업 후 추가로 공기업 3명 합격

모교 설송반(공기업 공무원 대비반)에서 공부하던 후배들이 졸업 후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코레일에 2명, 수자원공사에 1명이 추가 합격했다고 소식을 보내 왔다. (전기과 이동현, 김기범, 김동준 후배) 이로써 작년 졸업생 중 국가 철도공단 1명, 한국 철도공사 5명, 한국 복지의료공단 1명, 수자원공사 1명이 합격하여 총 8명이 공기업에 합격하였다.

늦은 밤까지 스스로 학교에 남아 시험을 준비하던 모교 후배들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멋지게 도전하여 성공한 선배들을 본받아 여러 재학생들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메이커센터 교육설명회 중학교 교감선생님 41분 참석

모교 메이커센터 설명회 및 직업교육의 이해 협의회가 7월 12일 수요일 14시에 모교 나르샤실에서 개최되었다. 관내 중학교 교감선생님들이 41분이나 참석하였고 이는 80여 개의 대전시내 중학교 중 절반이 참석한 것으로 중학교에서 모교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날 중학교 교감선생님들은 나르샤실에서 연수 후 학교를 견학하고 가람관에 모여 간담회를 가진 후 협의회를 마쳤는데 학교 교육 환경 및 교육과정이 훌륭하다고 입을 모았다.

진오혁 학생 전국소프프테니스 개인 단식 우승

2023년 전국소프트테니스 종별선수권대회 개인 단식에서 모교 3학년 진오혁 후배가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다.

박기범 지도교사는 "평소 학생이 포핸드 스트로크에 재능이 있으며 자기관리에 철처하고, 묵묵하고 열심히 연습하는 연습벌레"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무더운 여름철에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1위라는 값진 결과를 받아 든 후배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수입 현황

기간 : 2023년 6월 28일 ~ 2023년 7월 25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상	1	송석구	20,000	
자	1	송주영	20,000	
방	7	김용춘	20,000	
전	8	박승희	20,000	
방	8	유재균	20,000	
전	8	이준규	100,000	
기	9	김범우	20,000	
기	9	김철웅	20,000	
전	9	박열근	20,000	
전	10	김태식	20,000	
광	10	안주현	20,000	
방	11	유재환	500,000	
기	12	유병소	20,000	
전	13	강석윤	20,000	
기	13	김희준	20,000	
기	13	송영헌	20,000	
기	13	한복수	20,000	
기	13	한상철	20,000	
기	14	김근식	50,000	
화	14	박종명	20,000	
화	14	송지영	50,000	
화	14	차영대	20,000	
전	16	김상호	20,000	
기	16	박철규	20,000	
전	16	성기일	20,000	
기	16	채홍종	20,000	
기	16	황창환	20,000	
기	17	송수영	50,000	
기	19	김용협	20,000	
기	19	류양수	20,000	
기	20	김기찬	20,000	
전	20	이경수	20,000	
기	22	김정훈	20,000	
기	24	남광덕	120,000	
기	26	김종일	20,000	
배관	29	성하천	20,000	

단체

17회우정골프모임	1,200,000
19회골프모임(총무 노기종)	200,000
23회 35주년기념발전기금	1,000,000
서울동문회	500,000

회보광고비

방	10	정구창	2,000,000
기	15	조현기	200.000
기	18	박종용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기	18	장영우	100,000
기	21	진춘식	50,000
기	39	김동연	50,000

"모교사랑" 자동이체

방	1	백운길	10,000
상	1	오응수	10,000
광	3	서한수	20,000
전	3	이우정	20,000
방	4	송석범	10,000
방	7	김민주(김이중)	10,000
광	8	김재겸	10,000
기	8	신도성	10,000
자	8	윤치영	20,000
전	8	임헌표	10,000
자	8	정기원	20,000
전	9	임세환 고문	10,000
전	9	임세환 이사	10,000
방	9	진한종	10,000
방	10	김영갑	10,000

"모교사랑" 자동이체

자	10	김창길	10,000
자	10	이경세	10,000
전	11	김용진 (6월)	10,000
전	11	김용진	10,000
전	11	박인삼	10,000
광	11	조동호	10,000
기	12	권석환	10,000
기	12	김기섭	10,000
전	12	김기용	10,000
기	12	김병무	10,000
기	12	라기원	10,000
기	12	서영환	10,000
기	12	전종현	100,000
기	12	정찬목	10,000
기	12	천명재	10,000
기	12	황규표	10,000
기	13	마평춘	5,000
화	13	박대균	10,000
기	13	윤성덕	10,000
기	14	김병갑	10,000
기	14	이종업	10,000
기	14	임화섭	10,000
화	14	최재형	10,000
기	14	한경환	20,000
기	15	서경원	20,000
기	15	이재일	10,000
전	16	김희곤	10,000
기	16	양희대	10,000
기	16	윤석길	20,000
전	16	장보환	20,000
기	16	조성서	10,000
기	17	김종수	10,000
기	17	김진덕	10,000
기	17	류승정	10,000
기	17	민운기	10,000
기	17	박환정	10,000
기	17	백준현	10,000
기	17	서승영	10,000
기	17	송선호	10,000
기	17	양희곤	10,000
전	17	오명진	10,000
기	17	정관성	20,000
기	17	정왕규	10,000
기	17	최현주	10,000
전	18	마수용	10,000
기	19	임운택	10,000
기	20	김동로	10,000
기	20	박경하	100,000
기	20	여명찬	10,000
기	20	이석래	10,000
기	21	김기영	10,000
기	21	김용근	10,000
기	21	문길수	10,000
기	21	박원종	10,000
배관	21	박찬권	10,000
전	21	오주철	10,000
기	21	오흥석	10,000
기	21	유호문	10,000
전	21	임동현	10,000
기	21	장명국	10,000
기	21	진춘식	10,000
기	21	한석원	10,000
배관	21	황경아	20,000
기	22	김갑수	10,000
기	22	김양훈	10,000
기	22	이보윤	10,000
기	22	정기채	10,000
기	22	정연근	10,000
기	22	조영백	10,000
전	23	김은철	10,000
기	23	이봉준	10,000
전	24	김용석	20,000
기	24	김형찬	10,000
기	24	박종호(6월)	10,000
기	24	박종호	10,000
기	24	안영호	10,000
기	24	이용주	10,000
기	25	강신철	10,000
기	25	홍준용	10,000
기	26	김윤태	10,000
기	26	류한의	20,000
기	27	송형태	10,000
기	27	이문휘	10,000
기	28	강문식	10,000
기	30	이정근	10,000
기	31	강두형	10,000
기	31	권오진	10,000
금	31	김종현	20,000
기	31	오선균	10,000
기	33	오규성	10,000
기	33	이재상	20,000
기	33	전우창	10,000
전	34	공대성 (6월)	10,000
전	34	공대성	10,000
기	35	김정규	10,000
기	37	박재현	20,000
무기명(충기공총동문)			10,000

16회 선반전공 선우회 창립총회

선반을 전공한 16 회 동문들은 7월 21일(금) 탄방동 킹덤뷔페에서 총 20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반전공 동기 모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에 윤석길(대전경찰청 퇴직)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모임 명칭은 (가칭)선우회로 결정한 가운데 회칙 인준과 함께 모임은 2개월 한 번씩 홀수 달에 갖기로 하는 등 참석한 동문들은 잠시나마 지난 추억을 되새기며 40년 전의 까까머리 고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길 초대 회장은 "그 동안 다른 전공 동문 모임은 있었으나 유독 선반을 전공한 동문들의 모임은 없었다"며 "가장 늦게 창립되었지만 앞으로 다른 전공 모임 못지않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모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총동문회 전기과 회장 김희곤 동문이 축하 화환과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줬고 16회 전체 동문회에서도 화환을 보내 축하해 주었다.

– 김희곤 16회 동문 –

안양동문회 서울대공원 둘레길 걷기행사

안양동문회는 지난 5월 14일 정기모임을 서울대공원 둘레길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은 건강을 위해 7km의 둘레길을 걸으며 선.후배님들 간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가졌으며 서로 간의 추억을 쌓았다.

진한종 안양동문회장은 "앞으로 이런 모임을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락처
진한종 (9회) 동문회장 (010-8406-1233)
채경준(26회) 총무국장 (010-3407-3295)

KIA 남대전 기아 서비스
자동차 검사 . 보험 수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4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 - 1500 / FAX : (042) 282 - 1501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세종점 ☎044-867-2202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근로자파견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예인아트 팩토리
서울 · 경기 수도권
상업공간 주거공간 설치미술
예인아트 팩토리
궁금하신점 및 문의사항은 대표 전화로 연락주시거나
직접 방문해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이봉연(23회)
010 5359 0968
공동대표 오길수(22회)
010 8879 6999
031 577 0968
lby6969@naver.com
예인 ART FACTORY

(주)필 엔 텍
FIL & TECH
대표이사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20
(가온비즈타워 220~222호)
TEL. (042) 626-8548
팩 스. (042) 626-8549

SH (주) 서한 ENC
MIURA 충청대리점
• 기계설비1종 설계 및 시공
• 열사용기자재 취급 및 시공
• 기계소방용품 및 안전용품 취급
• 안전관리 설계 및 시공
•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 산업용 탱크 및 식품기계
차장 김 동 연 (39회)
010.9813.0139
042.935.0280
042.935.0281
starkjpn@naver.com
www.seohanenc.co.kr
대전 유성구 테크노1로 37-9, B동 2층 202호

税務法人 이정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18회) 010-4506-5089
[국세청 서기관, 북대전, 대전세무서 등 28년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세무법인 YEE JEONG 이정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AS Asung (주)아성전기조명상사
대표 표 광 열(11회)
010-9252-1685
LED조명기구, 전선류
나노 배선기구
위너스 배선기구
번개표 조명
각종 전기용품도소매 총판
대전광역시 중구 인창로 4(대흥동)
TEL : (042) 253-1625 / 226-1625
FAX : (042) 222-1625
E-mail : asung430@naver.com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 OK)
도장공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 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 : (042) 670-7877, 7233
FAX : (042) 670-7876

CHEUNG SAN YU GOK 청산유곡
대표이사 강 인 성 (19회)
010-5319-5041
청산곡물산업
청산에프엔비이(시집가는 마청국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곡길28-1(부곡동 74-3)
Tel . 031-405-9495 / 6 Fax. 031-405-9491

KOHANDS (주)코핸즈 대리점
GSA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에어스타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제작 및 수리
에어 주변기기 일체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한 국 기 계
대표 장영옥(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meritz 메리츠화재
걱정은 메리츠화재가 대신할게요
FP/ 대전본부
오 규 성 (33회)
Mobile. 010-9551-0418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T.042-337-4004 F.042-337-4009
34903. 대전 중구 계룡로 800 동아빌딩 2층 www.meritzfire.com

HYUNDAI GENESIS
카마스터
이 용 주 (24회)
010-3404-6989
현대자동차
대전선화대리점
대전 중구 대종 545(선화동)
신차상담/할부/리스/렌트
TEL : 042-254-9000
FAX : 042-254-4000

HJ 한 진 산 업
대표 한 흥 석 (17회)
010-8744-7362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통로 78번길 61
Tel. (031)983-2170 Fax. (031)983-2176
전력량계부부품·자동선반부품·고무제품·C.N.C선반제품